

◆ 18년 3월 고2 33~37번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를 말한다.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고전경제학파의 리카도로부터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생산비는 투입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때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A 지역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인 5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 B 지역 토지도 경작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지라 부른다. B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6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어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의 추가 소득인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C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⑦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B 지역 토지에도 지대가 형성된다. 결국 쌀의 가격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가 되고,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차액이 되는 것이므로, 더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지대도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⑧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에 입각해 헨리 조지는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어야 한다는 지대 조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전경제학파에 이어 등장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는 지대를 잉여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⑥클라크는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지대를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의했다. 이 이론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생산 요소의 가격은 그것의 한계생산가치, 즉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 가격인 지대도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고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별개로 취급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했다.

리카도와 클라크의 논의는 신고전경제학파의 ⑤마셜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마셜은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한계생산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우선 마셜은 생산 요소를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생산 요소와 그렇지 않은 고정 생산 요소로 나누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각 고정 비용, 고정 비용이라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본은 가변 생산 요소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필지를 특정 시기에 목돈을 지불하여 빌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입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빌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즉, 한계 비용이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비용이므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 비용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 관여하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셜은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는 초기 신고전경제학의 관점과, 임금이나 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 안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마셜은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토지의 비속도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토지 이외의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를테면 마셜은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準)지대'라고 하였다. 이런 요소도 토지처럼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셜은 이전 까지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대의 성격을 달리 보는 두 이론이 후속 이론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고, 후속 이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 지대의 결정 원리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지대가 결정되는 사례에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 지대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밝히고 지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 지대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 지대론의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 지대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밑줄 친 [A]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갑국은 곡물 수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곡물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그동안 쓰지 않던 척박한 땅까지 경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물 가격과 기존 경작지의 지대가 크게 올랐다.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곡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읊은 '곡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갑국의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경쟁력이 없는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자신의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A] 그 손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맞섰다.

- 그동안의 지대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의 곡물 공급 부족은 지대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의 곡물 생산비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의 곡물 가격 상승은 곡물 생산비 하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의 곡물 생산비 상승은 지대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35 ⑦의 결과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1만 원이 된다.
-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2만 원이 된다.
-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3만 원이 된다.
-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 원,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1만 원이 된다.
-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3만 원,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 원이 된다.

36. ①, ⑤, 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은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에 영향을 끼쳤다.
- ② ①과 ⑤는 모두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짓고 있다.
- ③ ⑥는 ⑤와 달리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 ④ ⑥는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지대를 해석하고 있다.
- ⑤ ⑥는 ①과 달리 지대를 자연적 요소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37. <보기>를 윗글의 마설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빵을 생산하던 기업 ④는 빵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밀가루 투입량과 노동자 수를 즉시 늘려 빵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빵 가격이 더 오르게 되자 ④는 거액을 투자하여 추가로 공장 부지를 빌렸고 이를 통해 빵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나)

임대 비행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⑥는 승객이 늘어나 비행 운임이 오르자, 비행기를 추가로 빌려 운항하는 비행기 수를 늘렸다.

- ① (가)에서 빵 가격이 오르자 ④가 노동자와 밀가루를 즉시 추가 투입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밀가루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④가 빵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추가로 빌렸다는 점에서 지대는 장기적으로는 가변 비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④가 추가로 빌린 공장 부지는 단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⑥가 지불하는 비행기 임대료는 비행기의 공급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준지대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⑥가 추가 투입한 비행기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군.

- 출전: 이정전 저. 《토지경제학》

- 정답: 33.① 34.① 35.⑤ 36.③ 37.③

◆ 05 MDEET(예비) 언어추론 25~27번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1766 ~ 1834)와 리카도(1772 ~ 1823)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맬서스는 “내 가족을 제외하고는 리카도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 문제를 놓고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곡물법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영국의 곡물법은 식량 가격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입 곡물에 대해 탄력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곡가(穀價)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시 수요는 크게 둔화된 반면, 대륙 봉쇄가 풀리면서 곡물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④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는 국력의 유지와 국방의 측면을 위해서도 국내 농업 생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주들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는 달리, 공장주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관세가 인상되면 곡가는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고 제조품의 수출도 감소하여 마침내 제조업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장주들은 영국의 미래는 농업이 아니라 공업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곡물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곡물법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맬서스와 리카도는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맬서스는 곡물의 수입 제한을 주장하였다. 곡물 수입은 곡가 하락을 초래하여 국내 농업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전쟁 등의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맬서스는 곡가 하락이 상공업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곡가가 하락하면 농업 이윤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축소되면 농업 부문의 고용이 감소함은 물론, 지대의 감소에 따라 ⑥ 지주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수요 부족에 따른 상공업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리카도는 이론과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 곡물 수입 개방을 주장하였다. 즉 농업 생산에서 영국보다 우위에 있는 프랑스의 곡물을 수입하는 대신, 영국은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다른 생산 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곡가의 상승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농부들이 아니라 지주들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⑦ 높은 곡가 때문에 지대가 인상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지주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⑧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 형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주장 모두 그 나름의 경제적 논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주와 귀족이 다수였던 당시의 영국 의회는 맬서스의 주장대로 결국 곡물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5. 곡물법을 둘러싼 각 경제 주체의 입장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공장주는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자유 무역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② 노동자는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의 가능성 때문에 곡물법의 유지를 원했다.
- ③ 정부는 탄력적인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곡가보다 수입 곡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 ④ 농부는 곡물법을 통해 물가 상승과 지주의 착취에 따른 손실 보전을 기대하였다.
- ⑤ 지주는 경제적 차원보다 국방 차원에서 곡물법의 폐지를 반대하였다.

26. 맬서스와 리카도의 논지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맬서스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 반면, 리카도는 귀납적 추론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맬서스는 상공업의 발전에서 지주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리카도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맬서스는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는 전략으로, 리카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전략으로 주장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맬서스와 리카도는 모두 지주들의 증대된 부와 자본이 공업 부문에 투자되어 공업의 발전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⑤ 맬서스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상공업 촉진 정책을 주장한 반면,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에 기초한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27. ④~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④: 곡물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 ② ⑤: 곡물 수입에 따른 공급 증가량보다 곡가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량이 더 적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 ③ ⑥: 지주의 소득이 주로 상공업 제품을 대상으로 지출됨을 전제한 것이다.
- ④ ⑦: 경작지 확대의 필요에 따른 토지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 ⑤ ⑧: 농업 부문의 이윤율이 높아져 자본과 노동이 농업 부문에 편중될 것임을 뜻한다.

◆ 09 LEET(예비) 언어이해 29~31번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베버는 독일의 통일 민법전(民法典)이 제정되자, 이를 서구 근대법의 최상의 형태로 보고자 하였다. 그의 관심은 서구 근대법과 자본주의의 친화 관계를 밝히는 데 있었다.

베버는 자본가의 관심이 서구 근대법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기업은 계산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마치 기계의 작동처럼 확정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에 의하여 그 작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법 체계와 행정 체계를 요구한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절대주의 국가의 확대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군주의 행정 기술적인 관심과 관료 행정의 공리적 합리주의가 서구 근대법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베버는 특히 관료제에 주목하면서, 관료제는 그 내적인 필요성에서 행정의 합리적 수단을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적·경제적 요인 이외에 서구 근대법의 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베버가 본 것은 직업적 법률가 계층의 성장이다. 법률가 계층의 양성은 유럽 대륙에서는 대학에서 행해진 이론적 법학 교육에 의하여, 영국에서는 실무자들에 의한 경험적 법 훈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서구 근대법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 로마법의 전통에 입각하여 유럽 대륙에서 수행된 근대적 법학 교육이었다. 근대적 법학 교육에서 사용되는 법 개념들은 성문화되어 있는 일반 규칙에 대한 엄격히 형식적인 의미 해석을 통해 형성되었고, 법 이론은 종교적·윤리적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에서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논리 체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법 이론의 지배를 받는 법률가 계층이 성장함에 따라, 법적 추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베버는 서구 근대법이 자본주의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계약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근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권리의 실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법적 안정성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둘째, 경제 활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법적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法人)과 같은 법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의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개인의 경제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자본주의와 서구 근대법의 관계에 관한 베버의 설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이른바 ‘영국 문제’이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⑦ 베버가 말하는 서구 근대법의 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법은 구체적 판례에 기초한 경험적 정의를 추구하는 불문법 체계로, 전혀 논리적이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빨랐다. 이 점에 대하여 베버는 영국의 법률가 계층이 그들의 고객인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판사는 엄격히 선례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판결 결과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요컨대 영국의 보통법이 체계적인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베버 당시의 독일이 경제적으로 영국에 뒤떨어진 사회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 문제에 대한 베버의 논의가 암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정도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법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 ‘서구 근대법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베버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불문법 체계의 유연성에서 비롯되었다.
- ② 자본주의 기업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의에 입각한 법 체계를 요구하였다.
- ③ 행정 관료는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서구 근대법을 필요로 하였다.
- ④ 기업 책임에 관한 법은 기업가의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자본주의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⑤ 서구 근대법은 경제적 계약 관계와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분리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성장을 기여하였다.

30. ⑦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적 추론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 ② 윤리 규범을 이용한 추론 체계를 갖는다.
- ③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 ④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 ⑤ 법전의 형태를 갖는다.

31. 이론이 전개되어 간 경로가 ‘영국 문제’에 대한 베버의 설명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벤델레에프는 원소를 일정한 규칙성을 갖도록 배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쟁하던 두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려 했다. 결국 그는 원소를 기본적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같은 순으로 묶는 방법을 제안했다.
- ② 다원은 자신의 친화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특징이 자식 세대로 안정되게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설명은 벤델에프에서 비로소 제시되었다.
- ③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뎅브릭은 형질이 원칙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진핵 세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형질이 유전자 외에도 다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④ 베게너는 대륙들의 해안선이 들어맞는다는 사실과 각 대륙의 화석 기록의 특징 등에 기초하여 대륙 이동설을 제안했다. 그의 이론은 동료 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대륙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판 구조론이 제시되면서 비로소 널리 수용되었다.
- 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수준의 미시 현상에서는 측정 과정에 개입하는 불가피한 물리적 영향 때문에 측정값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했다. 현재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지만, 여전히 그것의 수학적 형식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10 MDEET 언어추론 38~40번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슘페터의 경제 발전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이란 인구 증가, 자연계의 변동, 전쟁 등 경제 외부로부터 온 충격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범주의 태내에서 생긴 동인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혁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는 동물 유기체의 혈액 순환과 같이 매년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돌고 있는 순환적 흐름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혈액 순환은 유기체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변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경로 내에서의 연속적인 작은 변화들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경제는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기존의 순환적 흐름의 경로를 비연속적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경제 발전이라 부른다. 경제 발전은 순환 경로의 변경이며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균형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대체 한다.

순환 경로의 비연속적인 변화와 균형 이동은 산업 생활과 상업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망의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비자의 기호에 자생적이고 비연속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가의 점진적 적응 이외에 순환 경로의 비연속적 변화를 낳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의 기호 및 그 변화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경제학의 출발점은 소비자의 욕망 충족이 모든 생산의 목적이라는 것이며, 주어진 경제 상황은 언제나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욕망은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경제 순환의 근본적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은 새로운 욕망이 먼저 소비자 측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후에 생산 기구가 그 압력을 받아 전환하는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 발전의 주도자는 생산자이며, 생산자들로부터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 혹은 종래부터 써 왔던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쓰도록 교육받는다.

생산을 한다는 것은 사물(materials)과 힘(forces)이라는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다른 상품을 만들거나 동일한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이들 생산 요소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흔히 신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결합이 단지 기존의 결합 상태로부터 연속적인 적응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장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이라거나 경제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결합은 비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발전을 특징짓는 현상도 이때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신결합은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경제 발전은 바로 ⑦ 이러한 신결합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결합의 수행자는 신결합에 의해 배척되는 구결합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과 상업 과정을 통제하고 있던 사람들과 동일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신결합을 구현하는 기업과 생산 공장 등은 일거에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과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낡은 것은 일 반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대약진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결합의 수행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결코 이용되지 않았던 생산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생산 요소의 증가는 그 자체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기존의 경제 순환의 양적 확장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신결합에 따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결합에 필요한 생산 요소는 구결합에서 전용(轉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기 변동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낡은 경영을 도태시킨다. 19세기 후반의 세계 경제를 변화시킨 것은 저축과 이용 가능한 노동량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전용이었던 것이다.

3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균형 이동을 통하지 않아도 경제 발전은 일어난다.
- ② 경제는 순환 경로 내의 점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
- ③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이 상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④ 경제 발전은 경제 외부로부터 일어나 경제 내부로 파급된다.
- ⑤ 저축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민간 소비의 증가는 순환적 흐름의 규모를 변화시킨다.
- ② 경제 순환에서는 생산이 먼저 변해야 그에 따라 소비가 변한다.
- ③ 기술 체계의 변혁과 동시에, 재래 기술을 이용하는 공장도 대체 된다.
- ④ 소비자의 기호가 비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
- ⑤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은 경제 발전 담당 주체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다.

40. ⑦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력 방직기의 도입으로 직물업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하였다.
- ②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부품 표준화를 채택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 ③ 조립 라인의 증설로 몇몇 자동차 생산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였다.
- ④ 강한 견인력을 가진 중기 기관차의 등장으로 기차가 역마차를 대체하였다.
- ⑤ 목탄 가격과 석탄 가격의 변화 때문에 코크스 제련법이 도입되어 철강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 11 PEET(예비) 언어 추론 19~21번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유럽의 후발국 공업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아이디어가 20세기 중엽에 거센크론(A. Gerschenkron)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유럽의 각국은 경제적 후발성의 정도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여 주며, 후발국 공업화의 경로와 성격은 개시 시점에서의 후발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후발성의 정도가 클수록 첫째, 공업화는 광공업 생산의 '급격한 대약진'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러한 대약진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둘째, 기업과 공장 규모는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공장 노동에 적합한 노동자가 부족하여 근대적 기계 설비를 갖춘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셋째, 소비재보다 생산재가 강조된다. 이는 영국의 성공적인 공업화가 철강 등 생산재의 대량 생산 체계에 있다고 후발국이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총소득에 대한 저축 및 투자의 비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압력이 더욱 커진다. 다섯째, 발전 초기의 산업에 대해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이는 선진국에서 자생적 역할을 수행한 기업 부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농업이 공산품의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낫다. 즉, 후발국은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초기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공업화가 가능하다.

거센크론은 후발성의 정도에 따라 19세기 유럽의 국가들을 선진형, 상대적 후발형, 그리고 극단적 후발형이라는 ⑦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이 갖는 후발성의 차이는 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의 변이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영국에 비해 후발국인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형제가 설립한 투자 은행인 크레디 모빌리에가 공업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일의 은행은 유니버설 뱅크의 전형적인 예로, 영국의 상업 은행이 행하였던 단기 업무와 공업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크레디 모빌리에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형태였다. 영국에서는 공업화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중공업의 발전에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자금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이윤의 재투자를 통한 자본 공급이 일어났다. 한편, 독일보다 더 낮은 발전 상태에서 공업화를 개시한 러시아에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처음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중공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에 자본 공급에서 차지하는 국가 재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독일에서와 같은 유니버설 뱅크가 등장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각국의 공업화 과정을 파악하는 관점은 경제 발전을 단계론적으로 인식하는 관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자에서는 모든 국민 경제가 경제 발전의 도상에서 규칙적·필연적으로 동일한 단계들을 밟는다고 상정되고 있다. 예컨대 전후 냉전 시대의 이론가인 로스토(W. W. Rostow)는 모든 경제가 전근대 단계로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급격한 공업화라는 도약 단계를 경험한 이후,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마침내 고도 대중 소비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준비 단계에서 농업 생산성의 증가, 성장 지향적 가치 체계를 갖춘 근대 엘리트의 등장, 사회 간접 자본의 정비라는 선형 조건이 충족되어야 도

야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후의 도약 과정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전 단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공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며, 농산품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의 혁명적 변화도 진행된다고 보았다.

거센크론은 로스토의 접근법이 단순명쾌하고 일반적인 논의로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보았다. 로스토는 영국에서 공업화에 선행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에만 주목하여 그것을 모든 유럽 국가의 공업화에 있어야 할 보편적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거센크론은 그러한 견해가 실증적 관찰과 어긋난다고 하였다. 즉, 영국에서 선행했던 요소들 중 일부가 후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선행 조건이 부재함에도 공업 발전의 대약진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로스토의 단계론으로는 후발국의 공업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거센크론은 '후발성'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각국 공업화의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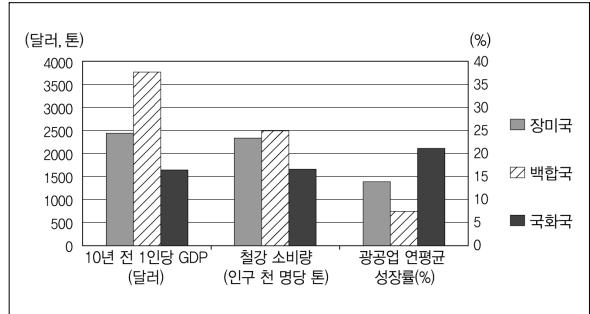
19. 거센크론과 로스토의 관점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센크론이 설명하는 공업화는 로스토의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
- ② 거센크론에 비해 로스토는 공업 부문 간 균형 성장을 중시하였다.
- ③ 거센크론은 로스토의 단선적 경제 발전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④ 거센크론과 로스토 모두 공업화를 급격한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 ⑤ 거센크론에 비해 로스토는 공업화에서 기업에 의한 자본 공급을 중시하였다.

20. 후발국 공업화에 대한 거센크론의 설명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한 중공업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 ② 산업 부문 간 자원 배분의 조정으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 ③ 소비 증대의 욕구가 강하므로 저축 및 투자 비율이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④ 노동 집약형 설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농업 생산성의 저체로 인해 공산품의 국내 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공업 부문에 대한 원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21. 다음은 ⑦의 전형적 사례를 도시한 것이다. 거센크론의 설명에 따를 때, 공업화를 경험한 3개국의 자금 조달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장미국: 국가 재정에 의존하다가 상업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② 장미국: 투자 은행에 의존하다가 기업의 자기 금융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③ 백합국: 국가 재정에 의존하다가 투자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④ 백합국: 기업의 자기 금융에 의존하다가 투자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⑤ 국화국: 상업 은행에 의존하다가 투자 은행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 23 사관학교 1차 4~7번

[4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화를 전후로 나타난 유럽의 인구 현상 중 하나는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에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로의 변화였다. 이 과정을 인구 변천이라고 하며, 인구 변천의 결과 유럽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보이며 인구가 증가하다가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인구 현상을 관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구 변화를 설명한 모델을 ⑦ 인구 변천 모델이라고 한다.

인구 변천 모델의 기본적 전제는 근대화와 출생률의 감소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 변천 모델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 성장률이 자발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다가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의 상태에 이르고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인구 변천 모델은 이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고위 정지 단계로 주로 근대화 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며,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을 나타내어 안정성을 보이고 인구 증가가 거의 없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확장 단계로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생률은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폭발 현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영양 개선, 공중 위생 · 보건 시설의 보급 및 의학의 발달 등이다. 세 번째 단계는 후기 확장 단계로 출생률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출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가족 계획 등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저위 정지 단계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 상태에 들어서며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인구 변천 모델 이후 타바라(Tabbarah)는 새로운 관점에서 근대화와 출생률 감소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는 부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구 규모에 기반하여 출생률 감소가 왜 나타나는지, 어느 시점에서 출생률 감소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바라는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C_d)'와 '부부의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 자녀의 수(C_m)'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C_d 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수치이며, 이를 생잔율*로 나누면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를 갖추기 위해 실제 출산해야 하는 자녀의 수(B_d)'를 알 수 있다. 또한 C_m 은 통계 자료에서 추출한 '부부의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 자녀 수를 갖추기 위해 실제 출산해야 하는 자녀의 수(B_m)'에 생잔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다. 타바라는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⑤ 인구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인구 발전 모델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C_m 이 C_d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출산율*도 낮고 자녀들의 생잔율도 낮기 때문에 C_m 도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C_d 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C_m 과 C_d 가 거의 비슷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원하는 이상적인 수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출산율과 생잔율이 증가하여 C_m 은 상승하는 반면에,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는 적어져서 C_d 가 하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C_m 이 C_d 를 약간 능가하게 되며,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C_m 이 C_d 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부부들은 부양 능력에 맞는 최대의 수만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수만큼만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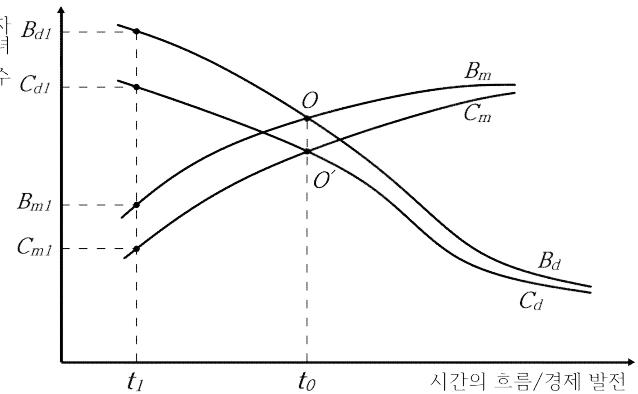
<그림>은 인구 발전 모델에서 시간의 경과나 경제 발전에 따라 실제로 원하는 자녀 수와 최대로 출산할 수 있는 자녀 수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 발전의 첫 번째 단계인 시점인 t_1 에서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는 C_{dl} 이다. C_{dl} 을 갖기 위해서는 B_{dl} 만큼의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B_{dl} 에서 C_{dl} 을 뺀 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를 실제로는 가질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부양 능력을 고려했을 때의 출산 수준이 B_{ml} 에 머물러

[A]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 때문에 실제로 갖게

되는 자녀 수는 C_{ml} 로 나타난다. 그러나 B_d 가 B_m 보다 클 경우 출산력*이 증가하여 출산 곡선은 B_m 곡선의 방향을 따르게 된다.

인구 발전의 두 번째 단계인 시점 t_0 에서는 B_m 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B_d 와 일치하게 된다. 부부가 실제로 출산한 자녀의 수가 그들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만큼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t_0 이후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부터는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만큼만 출산하게 되어 출산 곡선은 B_d 곡선의 방향을 따

른다. 따라서 t_0 이후에는 가족 계획이나 피임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부들의 출산 곡선은 B_m -O- B_d 의 곡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타바라의 모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출산 양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 생잔율 : 한 연령층의 인구 집단이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난 후까지 살아남게 되는 확률.

* 출산율 : 특정 기간의 출생자 수를 해당 기간 가임 연령의 여성 인구로 나눈 비율.

* 출산력 : 한 인구 집단의 실제적인 출산의 빈도.

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인구 변천 모델에 반영된 이론적 배경
- ② 인구 변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
- ③ 인구 발전 모델에 활용된 변수들을 산출하는 방법
- ④ 인구 발전 모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구 현상과 의의
- ⑤ 인구 변천 모델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 추세

5. ㉠과 ㉡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출생률과 근대화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 ② ㉠은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 성장률이 자발적인 수정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 ③ ㉠은 후기 확장 단계에서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 폭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④ ㉡은 부부가 원하는 출산 수준이 부양 능력을 고려했을 때의 출산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은 부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구 규모에 기반하여 출생률 감소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A]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B_{m1} 에서 C_{m1} 을 뺀 숫자는 t_1 시점에서의 생잔율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② t_1 에서 t_0 으로 진행되는 동안 출산력은 B_d 와 B_m 값의 차이에 비례하겠군.
- ③ 부부의 출산 수준에 따른 실제 출산 곡선은 C_m -O'- C_d 의 형태로 나타나는군.
- ④ t_1 에서 t_0 으로 진행되는 동안 부부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군.
- ⑤ B_d 와 C_m 이 만난 지점 이후로는 부부가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겠군.

7.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보기>의 ‘제2차 인구 변천 이론’이 등장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보기>

20세기 후반 이후 결혼 연령 상승, 결혼과 출산 간의 단절, 비혼주의나 결혼 제도의 파괴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출산력이 감소하였다. 기존의 인구 이론으로는 이러한 인구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인구 변천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출산력의 감소가 인구 안정 상태를 깨뜨린다고 설명하였다.

- ① 인구 변천 모델은 결혼 연령의 변화가 출산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 ② 인구 변천 모델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가 인구 안정 상태를 깨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③ 인구 변천 모델은 인구 변화가 정체된 상태 이후에 나타난 출산력 감소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인구 발전 모델은 비혼주의나 결혼 제도의 파괴를 출산력 감소의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 ⑤ 인구 발전 모델은 이상적인 가족 규모와 실제의 가족 규모 간의 차이로 인해 출산력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 08 MDEET 언어추론 26~28번

[26~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 할 정도로 혹독하고도 긴 경기 침체였다. 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1929년 말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당시 미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변형과 함께 대량 소비 풍조가 만연했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28년에 이미 미국인 6명 중 1명이 차를 소유했는데, 이는 불균등한 소득 분배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차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역시 성장의 동인이었지만, 당장은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 큰 집을 짓고 한두 대의 차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 무엇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들은 돈을 주식 투기에 쏟아 부었으며, 평범한 농민들까지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투기의 열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파산이었다.

⑦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FRB 산하 12개 지역별 중앙은행 이사들은 대부분 회원은행 출신으로, 여타의 지방 은행 은행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음 평가나 할 줄 알았지 불황기에 할인율을 인하하여 통화량을 늘리거나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통화 정책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이들이 점차 과열되는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FRB는 주식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고객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FRB가 할인율을 인상을 통해 은행 여신 이자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차익을 기대하던 투기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은행도 고객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신용 구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괜찮지만 일단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 FRB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FRB는 즉시 통화 팽창 정책을 쓰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택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형편없이 냉각되었다. 이것이 주식 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이다.

공황의 세계적인 확산을 최소화할 국제 신용 체계는 없었는가? 1차 대전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금 본위제가 전후에 재건되었으나 그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다. 당시 국제 신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최대 채권국인 미국이었다. 전전의 영국처럼 전후의 미국도 국제 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은 자본 수출에 대한 이자와 전쟁 채무 원리금이었으며 전통적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도 거기에 한몫을 했다. 채무국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만일 금 유입이 통화 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 사태가 달라졌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제 금 본위제는 결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최종

대부자가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증해야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전전의 영국은행(Bank of England)과 달리 FRB는 국제 신용망의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물가 안정에만 전념하였다. 때문에 FRB는 미국으로 유입된 금을 불태화*함으로써 금 본위제의 국제 규칙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1920년대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더라면 대공황은 확실히 완화되고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 불태화(sterilization):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

26. 위 글로부터 당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국제 신용 체계의 최종 대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물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
- ②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 부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비도 급감하였다.
- ③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금 유입으로 인해 통화 공급 증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 ④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⑤ 미국의 주택 실수요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27. ⑦과 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① 어음 평가나 하였을 뿐 호황기에 할인율을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이지 않았다.
- ②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폭락한 기업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 ③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의 여신 활동을 제약하였다.
- ④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주식 매입 자금을 여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다.
- ⑤ 주식 시장이 붕괴했을 때도 여전히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하여 물가 하락을 가속시켰다.

28.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대공황의 요인에 대한 위 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 ① 전체 소비 감소 규모에서 소득 불균등으로 인한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 ② 주가 폭락 이후의 금융 긴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공황 발생 시점 이후였다.
- ③ FRB의 금융 긴축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긴축 정책의 강도가 주가 폭락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달랐다.
- ④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포화 상태였지만, 그것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 ⑤ 국제 신용 체계의 불안정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신뢰와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 07 MDEET 언어추론 35~37번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존중하며 자랐다. 자유 무역을 옹호했던 19세기 사람들은 국제 분업이 자원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나아가 자유 무역이 특권과 독점에 맞서는 진취적 정신을 북돋우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자유 무역이 여러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적지 않게 달라졌다. 이제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극대화하자는 편보다는 극소화하자는 편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는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것은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 무역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사이의 저울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는 경제적 국제주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먼저, 대규모의 이민과 함께 구대륙의 기술과 저축도 신대륙으로 함께 건너갔다. 영국의 저축과 기술로 건설된 철로와 기차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미국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영국으로 환류되었고, 경약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시카고의 투기가 독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점이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들 사이에 산업화의 수준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현저하게 달랐던 때는 국제 분업의 고도화가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국제 분업의 경제적 이익이 오늘날에도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천연 자원, 문화 수준, 인구 밀도, 타고난 기질 등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적 특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의 경제적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단일한 국가적 경제적 금융적 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최신의 대량 생산 공정은 거의 같은 효율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富)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경제 속에서 원자재와 공산품은 개인 서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자립도의 증대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⑦ 자족적 국민 경제는,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호사(豪奢)가 된 것이다.

자족적 국민 경제는 그 자체가 이상(理想)이 아니라 다른 이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중앙 통제보다는 가능한 한 사적인 판단과 사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즐겨 상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간 기업의 구조에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의 작동을 통해 단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 줄 물질적 번영은 새로운 이상 사회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물론 사적 수익성의 논리로 보자면, 국경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에 자신의 저축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면, '자본 탈출'의 위협으로 인해 적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적 수익성 그 자체마저 망쳐 놓는 긴장과 반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실험을 행하자면,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그 기준을 바꿔야 할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이다. 벼려야 할 것은 재무장관을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처럼 보는 통념인 것이다.

- J. M. 케인스, 자족적 국민 경제 -

35. 글쓴이가 주목한 시대적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기술 혁신으로 공산품의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다.
- ②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 ③ 금융 이동 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되었다.
- ④ 원자재의 실질 비용 상승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자율 격차가 심화되었다.

36. ⑦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자족적 국민 경제는 사회적 가치들이 제고되는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② 비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국민 경제의 성장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 ③ 기업에 의한 자원 배분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④ 공공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제하고,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이동은 확대해야 한다.
- ⑤ 자족적 국민 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37. 위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 ② 금리를 크게 낮추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주가 거품 등을 유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훼손할 것이다.
- ③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물론, 정치적 자유마저 억압할 우려가 크다.
- ④ 외국의 선진적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유입될 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외적 긴장과 반목도 완화될 수 있다.
- ⑤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크기를 재는 것 또한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 16 LEET 언어이해 26~28번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세기 미국 경제는 확연히 다른 시기들로 나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30년 가까이는 성장과 분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황금기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는 소득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었고, 경제 성장률도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술 진보에 주목했다. 기술 진보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칭송되기도 하지만,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한 연구든 20세기 미국 경제의 역사적 현실을 통합적으로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골딘과 카츠가 제시한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교육은 더 중요하며, 불평등의 추이를 볼 때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우선 신기술 도입이 생산성 상승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계를 익숙하게 다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정규 교육기관 과 학교에서 보낸 수년간의 교육 시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학교를 졸업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 곧 숙련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 그런데 학교가 제공하는 숙련의 내용은 신기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20세기 초반에는 기본적인 계산을 할 줄 알고 기계 설명서와 도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교육은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제공되었다. 기계가 한층 복잡해지고 IT 기술의 응용이 중요해진 20세기 후반부터는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과 함께, 과학,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 대한 학위 취득이 요구되고 있다.

골딘과 카츠는 기술을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로, 교육을 숙련 노동자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기술의 진보에 따른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증가 속도와 교육의 대응에 따른 숙련 노동자 공급의 증가 속도를 '경주'라는 비유로 비교함으로써,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역사적 추이를 해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기술은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증가율 곧 증가 속도는 20세기 내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숙련 노동자의 공급 축면은 부침을 보였다. 숙련 노동자의 공급은 전반부에는 크게 늘어나 그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했지만, 1980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됨으로써 대졸 노동자의 공급 증가율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율을 하회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술과 교육, 양쪽의 증가 속도를 비교함으로써 1915년부터 1980년까지 진행되었던 숙련 프리미엄의 축소는 숙련 노동자들의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 곧 교육이 기술을 앞선 결과임을 밝혔다. 이에 비해 1980년 이후에 나타난 숙련 프리미엄의 확대, 곧 교육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는 대졸 노동자의 공급 증가율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소득 불평등의 많은 부분이 교육

에 따른 임금 격차에 의해 설명되었다는 역사적 연구가 결합됨으로써, 미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은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육을 결정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특히 양질의 숙련 노동력이 생산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도록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골딘과 카츠는 이와 관련해 191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던 중·고등학교 교육 대중화 운동에 주목한다. 19세기 말 경쟁의 사다리 하단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자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염원이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정책으로 반영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산세를 거둬 공립 중등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교사를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새로운 대중 교육 시스템의 확립에 힘입어 신생 국가인 미국이 부자 나라로 성장하고 수많은 빈곤층 젊은이들이 경제 성장의 열매를 향유했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은 신기술의 출현과 노동 수요의 변화, 생산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기관의 숙련 노동력 양성,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의 대응, 더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이라는 동태적 상호 작용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준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이론은 ⑦ 한계도 적지 않아 성장과 분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26. 윗글에 제시된 미국 경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0세기 초에는 강화된 공교육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 ② 20세기 초에는 숙련에 대한 요구가 계산 및 독해 능력에 맞춰졌다.
- ③ 20세기 초에는 미숙련 노동자가, 말에는 숙련 노동자가 선호되었다.
- ④ 20세기 말에는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의해 주도되었다.
- ⑤ 20세기 말에는 소득 분배의 악화 및 경제 성장의 둔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27.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련 프리미엄은 숙련 노동자가 미숙련 노동자에 비해 더 기여한 생산성 부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
- ②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적합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필요하다.
- ③ 숙련은 장비를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마된 능력을 뜻한다.
- ④ 숙련 프리미엄의 변화는 소득 불평등 변화의 주요 지표가 된다.
- ⑤ 교육의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앞서면 소득 불평등은 심화된다.

28. ①을 보여주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련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② 임금이 생산성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경우
- ③ 대학 졸업자의 증가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경우
- ④ 직종과 연령대가 유사한 대학 졸업자 간에 임금 격차가 큰 경우
- ⑤ 신기술에 의한 자동화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경우

◆ 09 LEET 언어이해 8~10번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인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한국계 이민 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이 자영업을 하는 비율은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70% 정도 높다.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 능력의 함께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이민 1세대 한국계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이 사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이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비록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하나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주류 사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회피하거나 떠나 버린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소수 민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나 노동 집약적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성격의 자영업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업상의 특징을 이룬다.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이 사업 준비와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민족적 지원과 개인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지원으로 첫째,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둘째, 이들은 가족 관계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의 가족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적 지원으로는 교육과 자본 조달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은 비록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업체 운영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이룩한 사회적 배경은 일정한 개인 저축과 용이한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규모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중간 상인 이론'이다. 중간 상인 집단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소유주와 세입자,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민 사회 형성 초기에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은 대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했다. 한국계 이민자 소유 사업체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 전물주, 정부 기관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한국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계 소매상 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하여 유통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하는 **수직적 계열화**를 실시하였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국계 소매상들은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을 중심으로 주문을 하나로 모아 좋은 가격으로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수직적 계열의 관리자로부터 외상 공급, 창업 자금 대출 등과 같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한국계 소매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소수의 상품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포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끼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수직적 계열화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수직적 계열화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계 이민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계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8. 위 글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 ②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력 조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③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쉬웠다.
- ④ 영어 능력의 한계로 직업 선택에 한계가 있었다.
- ⑤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9. 위 글의 **'중간 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간 상인 역할은 높은 이익을 보장하였다.
- ② 상류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중간 상인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 ④ 중간 상인 역할을 위해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요구되었다.
- ⑤ 중간 상인 역할의 어려움에 대응할 때 민족적 지원을 많이 활용하였다.

10. 위 글에서 **수직적 계열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경쟁이 완화되어 한국계 자영업자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 ②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 ③ 타민족 자영업자를 포용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였다.
- ④ 일정 지역에서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 ⑤ 생업을 위한 노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 21 LEET 언어이해 22~24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빈곤의 원인으로 지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삭스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외국의 원조에 기초한 초기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엔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은 열대 지역에 위치하고 말라리아가 극심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노동성과가 나쁘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 영양 섭취나 위생, 의료, 교육에 쓸 돈이 부족하고 개량종자나 비료를 살 수 없어서 소득을 늘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지원과 투자로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만 생산성 향상이나 저축과 투자의 증대가 가능해져 소득이 늘 수 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초기 지원과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삭스와 다르다. 이스털리는 정부의 지원과 외국의 원조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빈곤의 덫’ 같은 것은 없으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시장이 잘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이나 의료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개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털리는 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데, 특히 정부가 부패할 경우에 원조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지는 못하고 부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삭스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생활수준이 높아져 시민사회가 강화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빈곤의 원인이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는 애쓰모글루도 외국의 원조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둔다고 나쁜 제도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성장에 적합한 좋은 경제제도가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정치제도 때문이라고 본다. 어떤 제도든 이득을 얻는 자와 손실을 보는 자를 냉으로 제도의 채택 여부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가진 세력의 이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외국의 역할과 관련해 극단적인 견해를 내놓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로머는 외부에서 변화를 수입해 나쁜 제도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모지를 외국인들에게 내주고 좋은 제도를 갖춘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콜리어는 경제 마비 상태에 이른 빈곤국들이 나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악순환에 갇혀 있으므로 좋은 제도를 가진 외국이 군사 개입을 해서라도 그 악순환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일반적인 해답의 모색 대신 “모든 문제에는 저마다 고유의 해답이 있다.”는 관점에서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정책을 강조한다. 두 사람은 나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여지는 많다고 본다. 이들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의 모양으로 빈곤의 덫에 대한 견해들을 설명한다. 덫이 없다는 견해는 이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완만해지는 '뒤집어진 L자 모양'이라고 생각함에 비해, 덫이 있다는 견해는 완만하다가 가파르게 오른 다음 다시 완만해지는 'S자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가 뒤집어진 L자 모양의 곡선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유해진다. 이들을 지원하면 도달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도달점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S자 곡선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균형'으로 수렴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덫에 갇히는 이유도 다양하다고 본다. 따라서 빈곤의 덫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하지 말고 특정 처방 이외에는 특성들이 동일한 복수의 표본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처방의 효과에 대한 엄격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과 처방을 달리 하여 분석을 반복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처방에 대한 이들의 수요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해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빈곤을 퇴치하지 못하는 원인이 빈곤에 대한 경제학 지식의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2.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리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외국의 원조에 대해 긍정적이다.
- ②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정치제도 변화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④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외국이 성장에 미치는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⑤ 지리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만이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초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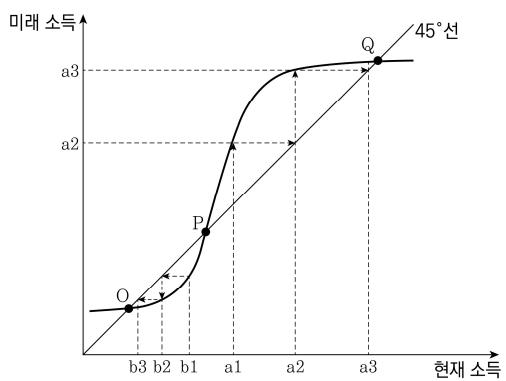
23. 배너지와 뒤플로의 입장은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도보다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애쓰모글루에 동의한다.
- ②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스털리에 동의한다.
- ③ 거대한 문제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점에서 콜리어에 동의한다.
- ④ 정부가 부패해도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삭스에 반대한다.
- ⑤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해답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로머에 동의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래 그래프에서 S자 곡선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45°선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특정 시기 t의 소득이 a_1 이라면 $t+1$ 시기의 소득은 a_2 이고, $t+2$ 시기의 소득은 a_3 임을 알 수 있다. S자 곡선에서는 복수의 균형이 존재한다. 여기서 '균형'이란 한 번 도달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상태를 말한다. 물론 외부적 힘이 가해질 경우에는 균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① 배너지와 뒤플로는 점 O를 '낮은 균형'이라고 보겠군.
- ② 삭스라면 지원으로 소득을 b_3 에서 b_1 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③ 삭스라면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b_3 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④ 이스털리라면 점 P의 왼쪽 영역이 없는 세계를 상정하므로 점 P가 원점이라고 보겠군.
- ⑤ 이스털리라면 a_1 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균형 상태의 소득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겠군.